

現代哲學의 志向 生에서 實存의 길을 檢討함 [제4회]

金午星

文化는 그것이 創造될 瞬間에는 어느 정도의 生과의 適應性을 보여주나, 그것이 차츰 發展됨에 따라 生에게 □隔되며 乃終에는 生에 對立하며 矛盾된다. 이리하여 文化는 歷史를 가지고 特殊性, 永遠性을 要求하게 된다. 文化는 生의 創造的인 形式임에 不拘하고 “生보다 以上”의 것, 즉 生의 對立者로 轉化된다. 그러나 生 그것은 不斷히 流動하는 것이며 固定된 持續的인 形式에 □□해야 形式을 突破하면서 不斷히 새로운 形式을 創造한다. 事實 歷史는 文化의 固定化가 아니고, 文化形式의 □□인 것이다. 生을 生成, 또는 運動으로서 이미 固定화된 自己의 生産物, 즉 文化와 衝突하며 그것을 突破하는 것이다. 그러나 生은 그 自身, 아무런 形式도 없이 存在할 수 없음으로 文化의 歷史的 發展은 새로운 形式에 依한 낡은 形式의 排除의 過程이라 할 것이다. 현대 이러한 過程은 마츨내 文化의 全體的인 危機에까지 集積된다. 여기서는 벌써 生은 自己의 直接性을 回復키 위하여 어떤 特定の 形式을 突破하려는 것이 아니고, 形式을 形式으로서 形式 一般을 生에 對한 □迫으로서 느끼게 된다.

짐멜은 現代를 이러한 形式 一般(文化 一般)과 生과의 全面的인 □□의 時代라고 하였다. 今日의 싸움은 벌써 낡은 形式에 對한 새 形式의 衝突이 아니라 形式 一般에서 벗어나려는 또는 形式의 原理에 對한 生의 鬪爭이다. 流動的인 生과 固定化의 文化形式과의 對立은 現代에 와서 窮極的, 絶對的인 鬪爭에까지 尖銳化되고 있다는 것이다. 生이 自己의 生産物인 文化形式을 突破하려는 것을 “보다 以上の 生”이라고 한다. “生보다 以上”과 “보다 以上の 生”과의 對立, 그리하여 “보다 以上の 生”이 “生보다 以上”을 突破하려는 것이 現代의 生의 哲學의 地盤이란 것이다.

以上の 粗雜한 敍述에서나마 우리는 生의 哲學의 構造만은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生의 歷史的인 理解, 또는 生에 依한 文化의 批判이 今日 휴머니즘,

또는 文化批判에 寄與하는 바 만흔은 勿論이다. 더욱이 人間의 生産物인 歷史가 오히려 人間을 壓迫하기에 이른다는 짐멜의 見解는 人間의 自己疏外の 今日的 現實에 對한 透徹한 見解라 할 것이다. 그러나 生의 哲學은 아래와 같은 史的 制限을 갖고 있음을 看過해서는 안된다.

첫째, 生의 哲學은 戰前의 哲學이란 것이다. 大戰 以前 즉 前世紀末 二十世紀初는 市民社會가 온갖 矛盾을 보여주면서 下向으로 다름길 치던 時期다. 그러나 아직은 온갖 矛盾을 나타내면서도 그것이 어느 程度까지 自己를 回復하고 維持할 수 있는 時期였다. 生의 哲學은 이러한 現實을 地盤으로 하고 생겨진 것이다. 生의 哲學에 依하면 市民文化는 矛盾과 危機를 갖고 있으며 그 矛盾과 危機를 한 개의 市民的인 生의 契機로서 突破하면서 自己를 回復해 갈 수 있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生의 哲學을 市民文化의 危機를 摘發하면서도 그 自身 市民的인 範疇를 完全히 벗어나지 못한 것이니, 生의 哲學은 理性, 精神 등의 로고스를 排擊하고 衝動, 本能, 心靈 등의 파토스를 主唱하면서도 어떤 形式으로나 理性, 精神을 密輸入하지 안할 수 없었던 것이다. 市民文化의 批判者가 오히려 市民的인 範疇를 벗어나지 못한 것이 生의 哲學의 面貌인 것이다. 이런 意味에서 生의 哲學은 小市民에 依한 市民文化의 批判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生의 哲學은 浪漫主義의 色彩가 濃厚하다는 것이다. 獨逸의 浪漫主義가 生의 哲學의 要素를 갖고 있음과 같이 生의 哲學도 浪漫主義의 要素를 갖고 있다. 浪漫主義는 흔히 末期時代의 產物인지라 生의 哲學이 浪漫的인 것임은 當然한 일일 것이다. 生의 哲學은 市民文化의 混亂 속에서도 오히려 그 混亂을 超克하여 어떤 正常狀態를 回復할 것을 夢想하고 있다. 짐멜은 現代를 形式 一般에 對한 生의 鬪爭이라 하여 藝術에 잇어는 未來主義, 表現主義, 哲學에 잇어는 實用主義, 宗教에 잇어는 神秘主義 등의 無形式인 것에 希望을 들이고 있으나, 그것은 오직 한 개의 市民的인 浪漫主義의 希望에 不拘한 것이다. 허나 어쨌든 生의 哲學은 浪漫的인 希望을 버리지 안헛든 것이다.

셋째, 生의 哲學은 審美的인 性質을 갖고 있다. 生, 또는 文化에 對한 態度가 어떤 人間の, 또는 生存的인 嚴肅性, 眞實性을 갖지 못하고, 第三者的, 觀照的인 態度에서 審美的으로 理解되며, 解釋된 것이다. 生의 歷史에 依한 壓迫, 또는 歷史의 生에 依한 變遷은 그것이 우리 人間の 生存에 어떤 切迫性을 갖는 것이라기 보담은, 한 개의 客觀的인 事態로서 되어지고 있는 것이다. 生의 哲學의 理解, 또는 解釋의 立場에 미치는 限, 生의 問題는 한 개의 審美的인 見地에서 밖에 解決되지 못한다.

여기서 우리는 生の 哲學의 史的 位置와 그 限界를 알 수 있거니와, 하이네만의 見解와 같이 生の 哲學이 今日 實存哲學으로 옮겨졌다고 본다면, 實存哲學은 生の 哲學과 어떠한 歷史的인 差異를 갖고 있는가? 우리는 兩者를 對比해보기 위하여 實存哲學의 內容을 敍述하기 전에 먼저, 그 特徵을 알기로 하자.

첫째, 生の 哲學이 戰前의 哲學인 代身, 實存哲學은 戰後의 哲學이란 것이다. 大戰은 社會史 上에서만 아니라, 思想史에 있어도 明確한 區劃을 가져다 주게 되었다. 戰爭은 既存의 一切의 價値系列에 對하여 懷疑와 否定을 가져 오게 하였다. 그래서 戰後의 知性人들은 一切의 實存的 價値를 다시 根源의 으로 審問하게 되었다. 實存哲學은 生の 哲學의 影響 밑에서 成立되었음에 不拘하고, 生の 哲學과 같이 生을 歷史的인 系列에서 解釋하려 하지 안코, 그것을 根源의, 形而上學的으로 探求하고 있는 것이다.

둘째, 實存哲學은 生の 哲學이 浪漫的인 反對로 리알리즘[리얼리즘]의 色彩가 濃厚하다. 一切를 다시 根源의 으로 探問키 위해서는 무엇보담도 주어진 事象에 徹底하지 안하면 안된다. 一切의 希望과 理想은 뒤에 올 問題다. 그러나 實存哲學이 리알리즘의 이라 해야 그것이 自然主義, 實證主義와 同一한 것임을 意味함은 決코 아니다. 自然主義, 實證主義가 客觀主義에 立脚했다면, 實存哲學은 主觀主義的인 意味의 리알리즘이라 할 것이다. 즉 事象의 리알리즘이 아니고, 人間의 內部生活의 리알리즘인 것이다.

셋째, 實存哲學은 審美的인 이 아니라 倫理的인 音響을 갖고 있다. 實存으로서의 人間을 生の 哲學에서 生과 歷史를 解釋하듯이 한 개의 事象으로 解釋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自身の 切迫한 運命으로서 挺身的으로 解決하려는 것이다. 勿論 實存哲學이 解釋的인 이 아니라는 것은 아니다. 하이데켈[하이데거]의 哲學은 “現象學的 解釋學”이라고도 들리워진다. 하나 實存哲學의 解釋은 第三者的, 事象的인 解釋이 아니라 主體的인 自己理解, 自己解釋인 것이다.